

이렇게 들었다

고리사채 범죄

“재물은 생활방편일 뿐”

■육식 있는 사람에겐 세상의 빈궁이 큰 고통이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받아 고뇌가 된다. 빚 주인은 찾아와 독촉을 하고 그 때문에 끝내는 결박되거나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

<중아함경>

■“재물은 종종 번뇌적멸의 인연이 된다.”

<대지도론>

고리사채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1백여 만 원을 빌려준 뒤 1억 5천만원을 받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심지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성폭행하고 땅 속에 묻는 일, 인신매매 등 범죄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돈을 빌기 위해서는 인륜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부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이러한 탐욕의 피해가 남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고통에 빠지게 한다며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삶을 강조했다. “나무가 필요할 때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만 그것들을 구하라”(마니주계경), “집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집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중일아함경)고 살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물론 이러한 생활이 요즘의 현대인이 지향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에 취하고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고통을 받으리라.”(비리경)

부처님께서 재물을 탐욕의 근원으로 보고 그 욕심에 빠지면 ‘인간 고기잡이’와 같다고까지 강하게 강조하신 것은, 돈은 밑바닥 독과 같아서 명에도 양심도 진리도 모두 그 속에 빠지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면 결국엔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인륜은 물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적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악덕 고리사채업자들의 극악한 범죄를 살펴보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재물에 대한 폐해를 그대로 엿볼 수 있게 한다.

재물이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과 비슷하다고 했는가. 이런 점에서 일부 고리사채업자들의 영적 범죄행위는 재물에 대한 갈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고리 사채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412곳. 여기에 무허가 업자를 포함하면 30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일련의 고리사채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관계기관의 관리부재도 빼놓을 수 없다. 어쩌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관계기관이 불법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김종근 기자

“내 마음 행복받아 한 생각 바꾸자”

불자 세상보기

어느 책이 잘 팔리고 있다면 그 책 속에 오늘의 시대적 문제에 던지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보아도 좋다. 최근 한국에서도 잘 나가는 미국 여성 로라 도일이 쓴 <아내 행복하라>도 그런 서적 가운데 하나다.

남편의 성(姓)도 따르지 않던(미국) 여성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남편 성을 따르게 마련 페미니스트인 저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두고 남편과 신경전을 벌이다 드디어 파국 직전에 터득한 지혜, ‘아내들이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남편에게 행복하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이 책은 담고 있다.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의 주도권 영

향력 경제권을 몽땅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많았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전개해 나가는 품새로 보아 ‘이거 어서 중세시대 이야기야’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듯하다.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책이 겨우 자의식을 싹틔워 인권으로서의 여권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말살하고 다시 노예근성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 터무니없이 보이는 책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 가족 또는 가정의 허체라는 오늘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고 있기 때

우리나라 이혼률 급증 가정붕괴 인성 황폐화

최근 한 통계를 보면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서 12만 쌍이 이혼했는데, 이혼률로 따지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달해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으나 스웨덴 독일 일본보다 높다. 이혼수속도 쉬워 합의이혼이라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단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수속으로 ‘갈’을 알린다. 옛날처럼 가족들의 반대도 거세지 않고 주변에서 느끼는 거부감도 없어졌다. 사회적으로도 헤어 지려는 부부를 화해시키려기 보다 ‘살



김정자 언론인 본지 논설위원

런 저런 한계와 모순이 있음에도 ‘우선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중심 메시지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부처님 말씀으로 바꾸면 ‘내 마음 행복 받아 한 생각 바꾸자’는 뜻일 것이다. ‘행복’ 뒤 찾아오는 기적과도 마법과도 같은 행복한 결과. 이 역시 다분히 종교적이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세태 따라 내 마음 좋은 데로’ 따르는 것이라면 ‘아내 행복하라’는 마음 좋은 데로 그의 마음을 행복받자는 것이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아내여...>를 찾아 읽는 이가 많다. 그것을 희망으로 삼자. 어디 아내뿐일까. 남편이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화두참구, 깨달음 얻는 확실한 매개체”

박성배 교수 ‘화두참선...’ 특강을 듣고

지난 5월 17일 열린 박성배교수의 특강을 관심 있게 들었다. 먼 여행길의 여독이 가시지도 않았을 시간에 열정의 강의를 보여주신 박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내용 중 달리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화두참선을 해야한다는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다. 마음으로는 이치, 또는 언어를 통해 모색하지 않는(岐心路沒義路 沒語路無摸索) 참구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강의 이후 일단 ‘화두참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부터 정확했어야 했다. 이는 화두참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그렇게 느끼고 충격 속에 강의장에 갔었다. 그러나 내용은 화두참선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자의 참구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화두가 방법이 아니라, 선이 종교요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필자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새로운 화두에 대해 지적 산물이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

박교수는 화두가 화두참선이어야지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물론 간화를 할 때 무언가 선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참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래서 화두참구가 동정일여(動靜一如)나 몽정일여(夢中一如), 나아가 오매일여(寤寐一如)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화두는 방법이고, 또한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해 <서경>을 비롯해 두이나 문산, 보조, 태고, 서산 등 수많은 선사들이 무자화(無字語)를 비롯해 여러 화두를 언급하며 그것을 참구하는 구체적 방법(간화선종법 등)을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며, 또한 간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면에서 화두는 매개체이고 따라서 간화선은 방법론에 속한다. 또다른 면에서 참구 시작 이후, 말씀처럼 ‘간화를 통한 무상대도 성취’라는 목적의식이 있거나 사색이라는 방법을 통

중호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행태가 되어서는 안되지만(이것은 간화선의 기초지식이다) 화두참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라는 인식을 수행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화두참구가 사색적 방법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간화선 그 자체는 화두를 매개로 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방법이며, 수행자들에게도 ‘확실한 방법’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교수의 이런 방법 부정론은 강의 중에 느낀 ‘화두참선’의 일부 내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옛 조사의 말씀 아무런 의미 없다”

용, 곧 참구 자체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목조선의 기풍이다. 목적은 이미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상태에 있다는 이른바 본체(本體)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미혹의 상태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간화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좌선 자체를 여불행(如佛行)으로 보고 있는 목조와 간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구조의 간화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또 박교수는 선은 ‘일반적 관점’에서 말하는 종교이고 신앙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선의 기본관점과는 다르다고 본다. 물론 종교나 신앙에 대한 개념규정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선은 ‘일반적 관

점’에서 말하는 종교와 신앙은 아니다. 아무런 숨김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내 그의 일치되도록 가르치는 이른바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종교라 한다면 선 역시 종교라 할 수 있지만 절대자를 상징하고 그에 대한 순종과 내세관 등을 내세우는 일반적 개념으로 본다면 선은 종교나 신앙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자행(自行)이 불행(佛行)이요, 자도(自度), 자성불도(自成佛道)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경>을 비롯해 여러 선 전적에서는 그 자신이 이미 절대자요 세상을 성교(成壞)시키는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또한 새로운 화두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지적 산물로 이해하는 것은 박교수의 오류라고 여긴다. 간화참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의단(大疑團)이다. 문제는 의단이 생기지 않는 것에 있다.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옛조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박교수의 말씀처럼 ‘난파’는 대의(大疑)에서 온다. 그리고 의단은 수행자의 근기(根基)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선가(家)에서는 이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실(趙實)에 참문하여 화두를 받도록 하는 본참공안(本參公案)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조사는 지금의 수행자가 대의(大疑)를 가지고 참구해 갈 수 있는 화두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학백공안도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그게 누구나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또한 일체현성(一切現成)이라 하였던 현실의 난제에 대해 대의를 가지고 간화적 참구를 할 수만 있다면, 즉 화두참구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오히려 이 시대의 수행자가 그야말로 대의로 참구할 수 있는 화두가 끊임없이 나타날 때 간화선은 참으로 간화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박성배 교수의 특강은 5월 17일 동국대에서 ‘화두참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렸으며, 강연 요지는 본지 319호 9면에 게재됨

독자의 소리

전국 설법 시연대회 신양수기 발표장 변해

무위법을 말하면 설법이라 하고 유위법을 말하면 설교 또는 강론이라 한다. 며칠 전(5월 18일) 조계종 전국신도대회에서 개최된 제 1회 전국 설법시연대회를 참관해 보았다. 행사는 설법이 아닌 신앙의 체험담(수기) 발표장이었고 내용도 열매나 독송, 신앙생활에서 얻는 환희심 또는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개인적 소감이 많았으며, 심사위원들도 이에 체점의 비중을 두었다.

문제는 설법장이 아니었다는데 있다. 같은 불교를 믿어도 안으로 믿으면 신행이지만, 밖으로 믿으면 신앙이 된다. 주회측이나 심사위원 모두가 불교의 핵심을 모르고 대의 홍보용으로 행사하는 어린 아이들의 유희장 같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의적으로 불교계에는 수승한 불자가 많고, 이런 행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싶다.

처음 공부할 때 유치원 아이에게 과자를 주는 것은 방편상 어쩔 수 없지만, 팔만대장경을 한 손에 삼으며 ‘자신을 찾으라’는 한마디 뿐이다. 이런 뜻에서 경전을 ‘뒀뒀’이라 한다.

신행도 아닌 수기를 전국대회의 대표 설법이라 홍보하면 법장(法場)이 오도될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이 떼거리로 몰려가 데모를 한다 해도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지만, 어른이 한 마디 하면 모두가 귀 기울이듯이, 신행단체가 수승한 불자를 찾아낼 수 없다면 아무리 불교개혁을 부르짖어도 공염불이 될 것이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친목단체로 머물고 말 것이다.

이창우(경남 양산시 웅상읍)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 조빙교수 윌슨스님, 권기중(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 | | |
|-----|----------|-------------------------------------|
| 1학년 | 1학기(14주) |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
| | 2학기(14주) |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 2학년 | 1학기(14주) |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
| | 2학기(14주) |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진명(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전형방법 |
|--------------|---------------------|-------------------------|--------------------|
| · 불교학 출강 00명 |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 서류전형 |
| · 불교학 통신 00명 |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 합격자 개별통지 |
| · 불교학 편입 00명 |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팔리경장 한글 번역 불사 회원 모집



2600년 전 고타마 붓다의 원음이 아름다운 우리말로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숭한 역사의 위기속에서도 존속해 온 소중한 팔리경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10년 대 불사가 대중불교운동의 요람인 남산 대원정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불교 바로 대중불교운동은 부처님의 원음인 팔리경장 번역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신명을 다해 이번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최봉수교수 연찬회(월 30,000원)

팔리 경장 연찬회에 참가하여 우리말로 옮겨진 팔리어 근본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의 TAPES를 우송해 드립니다

구독회원(연 30,000원)

매달 또는 격월로 발행되는 팔리경장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경전 1권당 2,000원)

군부대, 병원, 학교에 팔리경장을 법보시 할 수 있습니다.

승금계좌(예금주, 한국불교대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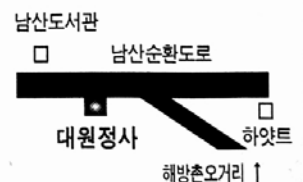
우체국 011791-01-000469 국민은행 098-01-0230-530

팔리 경장 연찬회

일시 : 매주 월요일 11시

장소 : 대원정사 (02-754-1613)

강사 : 최봉수 교수



대원불교대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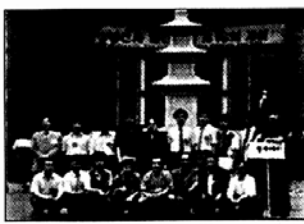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